

오인철 회장 차기 건설협 도회장 선거 단독 출마

오인철(63·사진)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이 제22대 차기 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제22대 도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지난 22일 마감한 결과 오인철 현 도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도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 추진 △회원사 권익 신장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오인철 현 도회장은 흥천 출신으로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태성종합건설 대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도회는 오는 3월6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차기 도회장을 선출한다. 윤종현기자 jjong@

건설협 강원도회장 선거 오인철 현 회장 단독 출마

도회, 내달 6일 임시총회서 결정

제22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선거에 현 도회장을 맡고 있는 오인철(63·사진) 흥천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단독 출마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22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선거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단독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도회는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올해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인철 대표의 신임 도회장 추대를 결정한다.

한편 오인철 대표는 현재 제21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신관호

社 說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일한 만큼 주지 않는 간접비 미지급에 대해 국회가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명은 지난주 말 국회에서 ‘일한 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공건설공사의 대표적인 갑질 관행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물량 부족에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있어서 이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위중한 사안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시공과정의 불공정 행위 중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이 50%에 달하며,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수령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은 뿌리깊은 갑을관계로 인해 공사진행 중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한 입법 불비에 원인이 있다.

국회가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데는 대법원 판결로 이제 입법조치 외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간접비 문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넘어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공정경제 확립 차원의 문제다. 이날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건설업계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가 개선될 때 일한 만큼 주고받는 올바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